

AUTHOR 김성린

TITLE 개혁주의 윤리의 원리와 적용

IN 고신대학보

33호 (9, 1977): 12-17.

특집

한국
개혁
신자
자세

改革信仰을 가진 사람들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롬 11: 36)의 真理를 生活原理로 삼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한다. 이 真理는 단지 어떤 주상적일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生動하는 真理로 위급된다. 따라서改革信者는 주위의 여러 生活 즉 倫理的인 問題나 社會 生活의 각종 面에서 그 真理의 말씀대로 생활하기를 원하며 또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中心하니 종국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思想은 改革信者的基本적인 정신자세이며 하나님 앞에서 (CORAM DEO)라는 대명제 아래서 生活을 하는 것이다. 백성을 받은 자들의 生活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義의 行動이다. 나라, 고요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信仰의 길을 걷는 실질적인 行動을 보여주는 것이다. 과연 改革信者는 어떤 길을 어떻게 걸을 것인가를 다시금 생각해보는 時間이 되자. <편집자>

■ 김 성 린

개혁주의 윤리의 원리와 적용

■ 이 근 삼

사회를 향한 개혁신자의 자세

■ 김 만 우

모든 영광을 주께로

■ 특집 / 개혁신자의 정신적 자세 ■

윤리적인 출발

김 성 린

린*



1. 倫理의 基準

改革主義信仰은 현실생활에서 도덕적 선의 실천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살아있는 참 善에는 반드시 선한 행위가 동반되어야 하며, 참 善은 三位一體의 人格神,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信仰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信仰에는 자격요소와 도덕적요소와 정서적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人間의 人格機能인 知·情意와一致하여, 서로 調和를 이룬다. 참 信仰은 진리와 선의 認識과 實踐의 意志의 결단과 정서의 순화를 통하여 具顯된다. 信仰의 座所는 마음이며, 마음은 人格의 中心이기 때문에 信仰은 全人格을 통하여 역사한다. 온전한 信仰은 人格機能의 한 부분에만 국한될 수 없고, 全人格이 信仰化되어야 한다. 참 信仰은 진리에 근거해야 하며 참 善을 實踐해야 하고, 순결한 정서를 유지해야 한다.

改革主義 信仰은 현실생활에서 倫理와 道德의 최고가치인 善의 실천을 추구한다. 善한 행위를 동반하지 않는 信仰은 죽은 信仰이거나, 미신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참 信仰 안에서 행하여지는 善은 참 善에 대한 바른 認識이 뒤따라야 한다. 게아무리 善한 행위를 하려 하는 意志가 있다해도, 참 善이 무엇인가를 認識하지 못한다면 참 善은 실천할 수 없을 것이다. 참 善이 무엇인가를 認識하기 위해서는 참 善과 惡을 판단하

* 고려신대 교수

는 基準이 있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정한 基準에 따라서 善, 惡을 判斷하여 한다. 우주와 人間을 물질적인 실체로 보는 유물론자나 감각론자들은 人生의 目的을 現세의 행복에 둘 것이며, 現세에서 人生을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되는 것이 善이 되고, 불행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되는 것이 惡이 될 것이다. 반대로 우주와 人生을 정신적 실체로 보는 理性論者에게 善이란 當爲(Sollen)의 성격을 具有하는 정신적인 것이 될 것이다.

우주와 人間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피조물로 보는 改革主義 信者에게 참 倫理的 善이란 하나님 자신의 意志의 표현인 그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改革主義 倫理는 人間의 感각적 雜感이나, 主觀的인 良心의 소리나, 先驗的(a priori)인 道德法則이 善惡의 判斷 기준이 될 수 없다. 人間의 道德法 自體도 칸트가 말하는 것처럼 人間에게 具有해 있는 善意志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完全하고도 永遠하신 道德의 속성에 근거하는 것이다. (The Confession of Faith, A. A. Hodge p.221)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人間의 道德的 本性은 人間의 原像(Original Image)이 되는 하나님 자신의 道德的 屬性을 떠나서는 存在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다.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人間에게도 義를 요구하시며, 義의 法을 宣布하시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다.

하나님 자신의 도덕적 속성에 근거한 완전한 義의 法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성경이다. 따라서 改革主義 信者에게 있어서 善惡을 判斷하는 유일의 도덕적 규범의 原典은 聖經이다. (미6:8, 딛후3:16)

우리의 표준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는 「善한 行爲」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선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말씀 가운데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성경)에 의하여 보증이 되지 않는 어떤 것들도, 맹목적인 열심이나 선한 의도를 구실로 하여 人間이 고안해 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Chap XVI)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①오직 聖經을 통해서만 참 善한 行爲가 무엇인지 알 수 있으며 ②따라서 聖經을 통하여 檢證될 수 없는 어떤 규범도 참 善이 될 수 없으며, ③善이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며,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준 人間의 存在樣式이기 때문에 人間은 어떤 경우에도立法者가 아닌 준법자의 위치에서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人間의 善인 것이다.

범죄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 부터 “선악과를 먹지 말라.”(창2:17)는 명령아래서 살아야만 했다. 이 명령에 순종하면 生存할 수 있었으나, 이 명령을 범하면 罪人으로 하나님 면전에서 추방을 당해야 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法의 내용은 누구도 가감할 수 없다. (신12:32) 사탄이 뱀을 통하여 하와에게 접근하여 유혹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의 내용을 가감하여 말하였으며, 가감한 내용에 따라 행동한 책임은 아담부부가 져야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선포하신 후, “그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저들의 義가 되리라.”(신6:25)고 말씀하신 것도 이스라엘의 義가 저들 자신의 人間性이나 行動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바 있다는 眞理를 보여준다. 善惡의 표준문제에 있어서 로마카톨릭주의는 우리와 입장은 달리하고 있다. 저들은 성경을 기준하여 도덕법을 제정하지 않고, 교회가 정한 표준법(Canon Law)에 의거하여 교황의 세력을 유지하며 신장할 목적으로 도덕법을 제정했던 것이다. 그 결과 로마교회의 많은 교리들과 의식들은 성경의 교훈과 정반대되는 것이 허다 했으며, 적절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로마교회를 비도덕적인 것으로 전락케 하는데 한몫을 하게 된 것이다. (Roman Catholicism, Loraine Boettner, p385)

로마교회에서 道德律을 제정함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미친 신학자는 Alphonsus Liguori였다. 영국의 저명한 저술가 Thomas Carlyle는 Liguori의 도덕율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만일 Liguori의 도덕율의 라틴어 원문을 읽을 수 있다면, 마음이 악한 사람은 겁에 질려 버릴 것이다. 이유인즉 그는 거기서 실제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방법과, 도덕질하지 않고도 타인의 재물을 탈취하는 방법과, 죽음을 이르는 죄를 짓지 않고도 쉽게 명을 범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Ibid p. 386)

Liguori의 도덕율의 몇 가지를 예를 들어보자.

(1) 좋은 주인이 창문을 타고 올라가서 간음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2) 술에 취하여 한시간 이상 완전히 정신기능을 상실하지 않는 한 음주는 도덕적으로 죄가 아니다.

(3) 금지령(사냥, 고기잡이 등...)을 범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4) 배출행위가 허락이 되어야 하는가고 질문을 받으면……허락이 되어야 한다고 대답을 해야 한다. 이유인즉 만일 저명한 성직자가 세계에서 배출부를 물아내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대로 실행이 된다면) 은세계는

정욕적으로 일대 혼란이 야기될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대도시에서는 매춘행위가 허락이 되어야 한다. (Ibid p. 386)

그의 이터한 도덕율은 비도덕적인 행위를 도덕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퀘변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 人間이 상황에 따라 도덕법을 정한다면 도덕법은 필연적으로 비도덕적인 것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人間은 참 선행의 기준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만이 믿음과 행위의 오류없는 유일의 규범이 된다는 聖經의 自證을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改革主義의 信仰이다.

2. 善한 行爲와 稱義

律法은 宣布된 法의 條文을 다 지켜 행해야 의로울 수 있다. (신6:25) 바리새인들은 律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 열심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부터 한번도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지 못했으며 바울은 律法을 지켜 행함으로 義롭게 된 사람은 한사람도 없다고 했다. 칼빈은 人間의 전적 부폐와 죄의 깊이가 명백하게 되는 것은 律法 앞에 설 때라 했다. 뿐더러 수도원적인 苦行과 修業을 통하여 人間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믿었다.

칭의(Righteousness)란 원래 법정에서 사용이 되는 용어로서 피고인에게 죄 없다는 선언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국단적으로 말한다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용서함으로 죄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복음 진리에 있어서 사람이 하나님의 최고법정에서 죄 없다는 인정을 받는 것은 은혜의 법에 의하며, 이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따라서 時間의 계열로 볼 때 人間의 선한 행위, 즉 律法을 다 지켜 행함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기 전에 이미 人間은 은혜의 법으로 義人이란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善한 行爲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善한 사람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편에서 주권적으로 義의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다. 뿐더러 “모든 善한 行爲 중에 최초의, 최고의 가장 고귀한 가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by W. Heick vol. I)고 주장하였다. 신자가 현실생활에서 죄를 멀리하고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義人

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이다. 칭의가 人間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宣言에 근거하기 때문에 칭의 자체는 선포되는 순간부터 이미 완전한 것이며 확실한 것이다. 비록 육을 가진 인간이 지상생활에서 죽을 순간까지 완전히 성화된 상태에 도달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칭의의 순간부터 이미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고, 성령의 계속적인 역사를 통하여 완전 성화의 단계에 까지 나가는 것이다.

현실생활에서 信者들이 善한 行爲를 추구하는 것은 義人이 된 자로서 만땅히 취해야 할 생활태도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칭의의 선언을 받은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자로서 의로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改革主義 信者の 생활모습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로마카톨릭주의는 역시 우리와 입장은 달리하고 있다. 그들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人間의 善한 行爲로 완전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Thomas에 의하면, 죄은 人間의 回心에 作用하는 劍因力이기는 하지만, 사람은 은총에 대비하여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행사해야 한다. 칭의는 하나님의 法의宣言이 아니고, 인간회복의 절차적 과정이다. 인간의 선한 행위는 인간 안에서 完全하게 되며, 하나님께 대하여 영원한 生命을 요구할 수 있다. 人間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가하여 선행을 쌓으면 자신의 구원에 필요한 것 보다 더 많은 功績을 쌓을 수 있다. 그리스도와 성자들이 쌓은 많은 공적들은 功績의 實庫이며, 이것은 교황의 자유재량 하에 있으며, 연옥에 있는 혼의 축복을 위하여 성직자가 집행한다(Ibid pp. 364-365) 로마카톨릭주의의 생활은 진양중심이 아니고 인간의 선행중심이 되며, 그 결과 구원의 확실성이 없게 된다. 경건한 사람도 자기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상태에 있게 된다.

3. 새 삶과 善한 행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改革主義 信者에 대하여 비난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유는 구원에 있어서 人間의 善行을 無用之物로 만들기 때문에 人間은 善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려 하지 않는 게으름뱅이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점에 대하여 칼빈은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철저한 해답을 주려 한다.

그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성령에 의하여 信者의 것이 되며, 그 결과 그리스도의 義가 믿는자에게 轉嫁된다. 거기에는 이미 새 삶이 시작되었으며, 새 사람이 살고 있으며, 새 사람에 의한 새로운 善한 행실이 산출되고 있다. 비록 인간의 선행이 완전하지 못하고,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할찌라도, 그러나 信者は 새롭게 된 자로서 구원의 확신과 완전성화의 소망 가운데서 즐거움으로 선한 생활을 하게 된다.

改革主義 信仰은 律法의 義를 무시하지 않는다. 이는 예수께서 律法의 義를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完全하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다. 의롭게 된 信者は 새롭게 된 良心를 가지고 하나님의 律法 앞에서 自己의 罪를 認識함과 동시에 罪의 용서함을 받은 사실을 確信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된다. 그리하여 律法에 염애이는 종으로서가 아니고, 律法에서 해방된 自由人으로서, 자진하여 律法을 사랑하고 律法의 義에 순종하게 된다.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의 요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명 앞에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강력한 내적동기에 의해서 그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완전하게 된다. 律法의 完成은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사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사랑은 人間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체험하고, 느끼는 자 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하여 歷史的으로 具體化되었다. 人間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十字架를 통한 구속의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다. 그때 비로서 인간은 하나님과 사람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으며, 이 사랑의 동기에 의해서 계명에 순종할 때 계명을 참 지키는 것이 되며 그것이 선한 행위가 된다.

改革主義 信者は 어떤 의미에서도 도덕폐기론자가 되어서는 않된다. 우리의 義가 바리새인의 그것보다 못해서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율법적으로 계명을 해석함으로 계명이 담고 있는 참 정신을 잊어버리고 그 형식만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도 않을 것이다. 순종이라는 행위 속에 사랑이라는 정신이 담길 때 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며, 그것이 人間의 참 善行이 됨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를 향한 개혁신자의 자세

이 근 삼*

1. 基督信者와 지상환경

1)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치 질서 회복

이 세상에서 人間은 본래 創造世界 중에서 主인이며, 관리자로 지음 받았다. 이 世上은 그 모든 선함과 풍성함이 사람의 所有가 되고 즐거움이 되도록 지어졌고, 타락 이전의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좋은

것을 자유로운 良心과 간사함으로 사용하고 즐길 能力を 받았던 것이다. “主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萬物을 그 밤아래 두셨으니” (시8: 6)

그러나 人間이 타락함으로 온 중요한 영향의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創造의 창질서대로 사는 使命을 거부함으로 자기 주변의 世界에 대한 人間自身의 主人된 權利와 地位를 상실한 것이다. 칼빈은 “세계정부은 아담 안에 있는 우리들로 부터 빼앗기고 말았다. 타락한 人間이 이 世上을 사용해야 하고, 이 世上의 生產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人間은 그렇게 할 權利가 없다. 그 理由는 이 世上은 하나님의 子女를 위한 世界인데, 人間은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하나님의 子女된 身分을 배반함과 동시에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人間은 權利없는 도적처럼 살 수 있을 뿐이다”고 하였다. 그 증거로 萬物이 이 世上에서 統治의 權利가 없는 人間에게 복종하는 것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있다. (창3: 19, 롬8: 19, 22) 그러나 이 世上에 대한 人間의 關係에 있어서 참된 질서는 예수 그리스도

* 고려신대 교수